



‘민속문화’

음력 정월 초하루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이다. 원단(元旦)·원일(元日)·신원(新元)·세수(歲首)·연수(年首)라고도 하는데 모두 그 해의 첫날 이라는 뜻이다. 또한 조심·근신하는 날이라 해서 신일(愼日)이라고도 쓴다. 설날은 추석과 함께 2대 명절로 고향을 찾아서 민족의 대 이동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설날의 세시풍속으로 대표적인 것은 차례(茶禮)와 세배다. 아침 일찍 깨끗한 설빔으로 갈아입고 세찬을 차려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차례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차사(茶祀)라고도 한다. 차례는 4대조, 즉 아버지 내외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내외까지만 지낸다. 차례는 사당문을 열고 신주를 모셔다가 지내거나, 신주가 없는 집은 지방(紙榜)을 써서 붙이고 지낸다.



차례가 끝나면 모든 가족들은 자리를 정리해 앉는다. 이 때 윗사람에게 순서대로 세배를 한다. 세배는 웃어른 뿐만 아니라 부부지간·형제지간에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안에서 세배가 끝나면 이웃의 가까이 지내는 어른에게도 세배를 한다. 세배를 할 때에는 좋은 말로 인사를 주고받는데 그 말을 덕담(德談)이라고 한다. 어른께 “새해에 더욱 건강 하십시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등의 덕담을 드리면, 세배 받은 어른도 세배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금년에는 소원 성취하게” 또는 “금년에는 장가가고 복 많이 받게” 등으로 인사에 답한다.

세배가 끝나면 세찬(歲饌)을 먹는다. 세찬은 떡국을 비롯하여 수정과·편육·약식·강정등 설 명절을 위해 새로 마련한 음식을 일컫는다. 세찬의 대표적인 음식은 떡국이다.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 한 살을 더 먹은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떡국은 새해 들어 나이를 먹게 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떡국은 멥쌀로 빳은 흰떡으로 만드는데, 칼로 얇게 썰어 쇠고기나 닭고기 국물에 넣어 끓인다. 원래는 꿩고기 국으로 끓이는 것이었으나, 꿩을 구하기가 힘들어 대신 닭고기나 쇠고기를 쓰기도 한다. 속담에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다.

정초에는 제액(除厄)을 위한 여러 가지 세시 풍속이 있다. 정월 초하루 밤에는 야광귀(夜光鬼)라는 귀신이 집을 찾아와 신발을 신어보고 맞으면 신고 간다 하여 신발을 감춰 놓고 잤다. 신발을 잃은 사람에게 불행이 닥쳐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정월 열 엿새를 귀신날이라 하여 이 날 신발을 엮어놓으며 방액하는 풍속이 있다.

삼재(三災)는 물, 불,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재해로서 수종(水腫), 심화(心火), 풍병(風病)을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액막이는 정월 초, 정월 14일, 입춘에 했다. 각 가정에서는 세화(歲畵)라 하여 대문에 용, 호랑이, 닭을 그려 붙여 액이 물러가기를 빌었고, 삼재를 면하기 위한 부적을 붙였다. 닭은 새벽 밝음을 알리는 동물이며, 호랑이와 용은 두려움과 공경의 대상으로 이들을 통해 액막이를 한 것이다.

정초나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엿을 먹는 ‘복 엿먹기’ 풍속이 있다. 이 때 먹는 엿은 몸에 좋다고 ‘복 엿’이라 하며 주로 흰색의 가락엿을 먹는다. 복엿을 먹으면 얼굴에 버짐이 피지 않으며, 일년 내내 입맛이 좋아져서 무엇이든 맛있게 먹는다고 여겼다. 또한 복엿을 먹으면 엿가락처럼 살림이 늘어나서 부자가 된다고 하였다.

정초에 토정비결(土亭秘訣)이라는 책을 통해 한 해의 운수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점복풍속이 전해 왔다. ‘토정비결’은 조선 중기의 학자 토정 이지함(土亭 李之菡)이 지은 도참서(圖讖書)로 개인의 사주(四柱) 중 태어난 연, 월, 일 세 가지로 육십갑자(六十甲子)를 이용하여 일년 동안의 신수를 열두 달 별로 알아보는 방식이다.

정초에 토정비결을 보는 풍습은 정조 이후인 조선말부터 세시 풍속으로 자리 잡았다. 새해를 맞아 한 해에 대한 기대심리와 놀이적 요소가 복합된 점복적인 풍습으로 이어져 왔다.



정월 한 달 동안은 끊임없이 놀이가 계속되었다. 특히 ‘선 보름’이라 하여 1일에서 15일까지에 집중적으로 놀이가 성행했다. 윷놀이는 설날의 정취를 잘 나타내는 놀이로써,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널리 즐겼다. 윷놀이는 척사(擲柶)라고도 한다. 윷은 주로 박달나무, 또는 싸리나 그 밖의 단단한 나무로 만들며 채윷이라고도 하는 장작윷과 밤윷의 두 종류가 있다.

윷판이 언제 만들어져서 보편화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말 이색의 ‘목은집’에 현행의 윷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려말 이전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윷놀이는 정월의 마을 축제로서 재미로도 하지만 농경사회에서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소망이 담겨



져 있다. 즉 옷판은 농토이고, 옷말은 놀이꾼이 옷을 던져 나온 옷패에 따라 움직이는 계절의 변화를 상징해 풍년을 가져온다고 여겼다.

마을 전체나 문중이 옷놀이를 할 때는 마을의 큰 집이나 宗家(종가) 혹은 서원(書院)의 마당에서 한다. 옷패는 4개의 옷을 던져서 얹어지고 젖혀진 상태에 따라서 도, 개, 걸, 옷, 모로 결정된다. 옷과 모를 했을 때는 ‘사리’라 하여 한 번 더 한다. 도는 돼지, 개는 개, 걸은 양, 옷은 소, 모는 말을 상징하고 있다. 즉 가축의 크기와 빠르기에 따라 옷패의 발 수와 옷말의 움직임이 결정된다.

연날리기는 주로 겨울철에 바람을 이용하여 연을 하늘에 띄우는 민속

놀이로 주로 남자들이 즐긴다. 종이에 가는 대나무 가지를 붙여 연을 만들고, 열레에 감은 실을 연결한 다음 날리며 논다. 연날리기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은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647년 선덕여왕이 죽고 진덕여왕이 즉위했을 때 김유신 장군이 반란군을 평정하기 위해 연을 만들어 전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내용이다.

한국 연의 종류는 연의 형태와 문양에 따라 분류되며 그 종류가 100여 종에 이르고 있다. 그중 한국 연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방패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방패연은 사각 정방형의 중앙에 방구멍이 뚫려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날리는 꼬리가 달린 가오리연이 많다. 사람, 동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자의 창의성에 따라 만드는 창작연도 있다.

연날리기는 선달그믐에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연을 날리는 때는 정초부터 보름까지이다. 특히 정월 보름날에는 액막이라고 해서 소년과 청년들이 연날리기를 많이 한다.

액막이는 그 해의 재앙을 멀리 쫓아버린다는 것으로 연 꼬리에 ‘송액(送厄)’이나 ‘송액영복(送厄迎福)’이라는 등의 글자를 쓴다. 연(鰲)이 높이 날아올랐을 때 연 실에 불을 붙여 실을 끊어 연을 멀리 날려 보냈다.



널뛰기는 정초에 여자들의 즐기는 놀이다. 짚단이나 가마니를 받침으로 하여 길다란 널판지를 놓고, 양끝에 한사람씩 올라가서 한쪽에서 힘껏 내리 디디면 한쪽에서 높이 솟아오른다. 승부는 여자들 중 어느 한쪽이 균형을 잃어 널에서 떨어질 때에 결정된다.

널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이 전해내려 온다. 옛날 죄를 지은 두 남자가 옥 속에 갇혀 있었다. 이들 부인 중 한 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 자기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 다른 죄인의 아내와 공모하여 널을 뛰면서 담장 너머 옥에 갇혀 있는 남편들의 얼굴을 엿보았다고 한다.

또한 옛날에 담장 안에 묶여 있던 부녀자들이 세상 밖을 보고 싶어서 널뛰기를 하여 몸이 공중으로 높이 솟을 때 담장 밖의 세상 풍경과 남자의 모습을 훑쳐보았다는 얘기도 있다.

설날 원색의 한복으로 곱게 단장하고 널을 뛰는 모습은 활기가 넘치고 아름답다.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재정과 지방세”는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교양 지로써 아래와 같이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세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사례, 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제안 · 논문

지방재정·세제발전과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

■ 우수사례

각 자치단체의 독특한 재정·세제활동이나 우수 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내용

■ 수필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재정·세제인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생활이야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략기획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우)121-719
Tel : 02)3274-2036
Fax : 02)3274-2009
E-mail : enyouho@klfa.or.kr

“지방재정과 지방세”지에 실린 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

2011년 1월호
(통권 제 37 호)

발행인 이상복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편집인 이주석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편집위원 곽채기 | 동국대학교 교수
김대영 | 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완규 | 중앙대학교 교수
손희준 | 청주대학교 교수
안경봉 | 국민대학교 교수
유경문 | 서경대학교 교수
유태현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삼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만수 | 한양대학교 교수
최진혁 | 충남대학교 교수
(이상 가나다순)
손육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이사
조봉업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변성완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구본근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장
이보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전동훈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진명기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장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발행일 2011년 1월 일

디자인 · 인쇄 금성문화사 (02-2263-4906~7)